

웃돌이님 논술 침삭 (2012 연세대학교 인문 낭비)

문제 1. <2자비교 및 대응>

1. 전체적으로 비교에 대한 서술과 근거또한 완벽합니다. 비교는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“하지만 제시문(나)의 경우 벽돌공의 필요 없는 몸의 동작을 낭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, 이는 육체적인 활동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(가)와 다르다.” 이부분은 내용상 틀린 내용입니다. 제시문 (가)에서는 낭비를 육체적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과학, 철학등 모든 부분이 낭비를 통한 활동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제시문불일치입니다. 이걸 정~말 큰 감점요소예요.
2. “이는 본능적이고 생명보존 형태의 일부분인 낭비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제시문 (가)의 입장과 상충한다.”라고 결론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제시문 (다)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영구적으로 망각한다는 점은 또 제시문 불일치입니다. 변칙에 대한 서술이 뒤에서 나타남으로 제시문 불일치 근거를 가져오셨네요. 그리고 제시문 (가)를 통해서 원근단축은 제시문 (가)와 상충되는건 맞지만, 변칙에 대해서는 또 대응되지 않아서 부족한 답안입니다.
3. (다)대응은 두 방향으로 원근단축과 변칙에 대한 서술이 존재하며, 근거또한 충분히 제시되어 있어 좋은 대응입니다.
4. 총평하자면,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항상 논술 합격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쉬운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하셨으면 이는 큰 감점요소가 될것입니다.

문제 2. <표 해석을 통한 발문 대응>

1. 제시문 (나)를 통해 “이러한 방법으로는 서류심사에서 최저의 기준을 잡고, 그 기준을 넘는 모든 인원들을 면접심사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.” 이런 결론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죠?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입니다. 큰 감점.
2. 제시문 (라)의 결과를 통해서도 “이 결과를 이용하여 프랭크 길브레스는 서류 심사에서 최대한의 인원을 합격시켜 놓은 다음 면접심사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, 시간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보다, 업무의 첫 단추. 즉 처음 시작을 얼마나 현명하고 뚜렷하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”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근거가 없고 단순히 제시문 (라)의 표해석 / 그리고 결론 이렇게 되었습니다. 표 해석을 통해 -> 근거 유도 ->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-> 결론이 나와야되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된채 결론만 있는 논리적 비약입니다.

전체적으로 2번문제는 어떻게 결론을 도출했는지 궁금하네요.

이 문제를 풀어보시고, 미리 답안을 읽었다고 생각드는데 마치 수학문제의 답은 알지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